

“시즌 20승 이상 목표…봄배구 진출 이뤄낼 것”

베테랑 고예림·외인 조이·시마무라 영입 ‘전력강화’

21일 한국도로공사 상대 홈 개막전…공격력 등 기대



“올 시즌 20승 이상을 목표로 봄배구 진출까지 이뤄내겠습니다.”

마내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올 시즌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AI페퍼스는 지난 11일 광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25-2026 시즌 AI페퍼스 미디어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동연 단장을 비롯해 장소연 감독, 고예림, 박정아, 조이 웨더링턴, 시마무라 하루요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창단 이후 5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AI페퍼스 선수단의 각오와 목표 등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단장은 “AI페퍼스는 지난 2021년 창단한 이후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 왔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팬들의 열원과 관심이 구단에 큰 힘이 됐다. 올 시즌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코트 안팎에서 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합류한 AI페퍼스는 그동안 만난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지난 시즌 역시 창단 최초 투자뒀수 승수(11승) 등을 달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순위를 바꾸진 못했다. 이에 올해 비시즌 전력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전 현대건설 소속 베테랑 아웃사이

드 히터 고예림을 FA로 영입하며 수비 강화에 나섰다.

이어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미국 출신의 아포짓스파이커 조이 웨더링턴을 영입했고,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전 일본 국가대표 마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를 지명했다.

전반적인 전력을 끌어올린 AI페퍼스는 다가오는 시즌 더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장소연 감독은 “이번 시즌은 꼴찌라는 꼬리표를 탈출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이와 시마무라 선수를 영입했고, 베테랑 자원들도 포진해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즌 중반부 연승을 달리며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선수들의 뒷심 부족이 있었다. 그래도 목표를 달성했고, 자신감을 얻은 시즌이었다”면서 “이미 이기는 맛을 알게 됐고, 비시즌 체계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도 했다. 올 시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AI페퍼스는 최하위 탈출을 넘어 시즌 20승 이상, 봄배구 진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장 감독은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매 라운드 3승씩 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여기서 한디헤가 ‘2승을 보태서 20승



최근 광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2026시즌 AI페퍼스 미디어데이’에서 장소연 감독, 박정아, 고예림, 조이 웨더링턴, 시마무라 하루요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을 달성하자’고 했다”며 “이 목표를 이뤄 나가면서 꼴찌라는 이미지를 탈출하겠다. 더 탄력을 받아서 봄배구까지 노력을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AI페퍼스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다. 이미 앞선 KOVO컵 대회에서 3전 전패로 4년 연속 예선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장 감독은 “캠프회를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팀이 어떤 방향으로 더 보완해야 하는지 예방주사를 맞았다”며 “수비와 결정력 등에 대해 준비를 잘해오고 있고, 잘 안 풀리는 순간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즌 때 잘 녹아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선수단들도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새 시즌 돌입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고예림과 박정아는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해 훌륭한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온 만큼, 새롭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올 시즌 좋은 경기력을 펼쳐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이와 시마무라 역시 “올 시즌 AI페퍼스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비시즌 다

른 선수들과 잘 소통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시즌 때 많은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2025-2026시즌 V리그 여자부 경기는 오는 18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AI페퍼스는 오는 2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송하중 기자 hajong2@kwangnam.co.kr



박혜정(왼쪽 두 번째)이 11월(현지시간) 노르웨이 피르데에서 열린 2025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86kg 이상급 경기에서 우승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송영환(오른쪽)이 2025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110kg 이상급 경기에서 3위에 올랐다.

‘역도’ 박혜정, 2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 탈환

송영환 3위…한국, 세계역도 합계 금 1·동 1개

합계 기준 메달 순위 공동 5위, 전체 메달은 6위

한국 역도가 합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안고 2025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마감했다.

합계 메달 순위는 공동 5위다.

인상, 용상, 합계 총 메달 순위에서는 6위(금 3개, 동 3개)에 자리했다.

박혜정(22·고양시청)은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피르데에서 열린 대회 여자 86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5kg, 용상 158kg, 합계 283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합계 기록으로만 메달을 수여하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역도선수권에서는 3개 부문 모두 메달이 걸렸다. 박혜정은 금메달 3개를 독식했다.

이날 박혜정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안고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박혜정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2024년 바레인 마나마 대회에서는 2위에 올랐다. 박혜정은 올해 피르데에서 다시 정상

에 오르며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다.

박혜정은 경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자신 있게 노르웨이에 왔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져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경기를 시작했다”며 “경기 당일에도 통증이 재발해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다. 단단히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고 썼다.

그는 “누군가에게 통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건 아니다. 곁으로 땀방울이 보여도 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다”며 “상대의 아픔도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함께 출전한 선수를 위로하기도 했다.

마리벨릭스 사리아(쿠바)가 합계 275kg(인상 118kg·용상 157kg)으로 2위, 메리 타이슨-라벤(미국)이 합계 269kg(인상 115kg·용상 154kg)으로 3위에 올랐다.

은퇴 수순을 밟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원원(중국)과 2024년 마나마 대회 챔피언 리엔(중국)은 불참했고, 중국이 내세운 신예 주민한은 합계 256kg(인상 116kg·용상 150kg)으로 5위에 머물렀다.

남자 최중량급(110kg 이상)에서는 송영환(24·흥천군청)이 인상 175kg, 용상 235kg, 합계 410kg을 들어 3위에 올랐다.

인상에서 7위에 머문 송영환은 용상에서 3위에 오르며,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같은 체급에 출전한 이양재(아산시청)는 합계 405kg(인상 180kg·용상 225kg)으로 4위에 자리했다.

바라즈다트 라리안(아르메니아)이 합계 461kg(인상 211kg·용상 250kg)으로 우승했고, 고르 미나시안(바레인)이 합계 447kg(인상 205kg·용상 242kg)으로 2위에 올랐다.

전날까지 남자 79kg급 손현호(광주광역시청)가 용상에서 동메달 1개만 땀을 뻘, 합계 메달 없이 대회 마지막 날을 맞은 한국은 박혜정과 송영환을 앞세워 합계 노메달과 노골드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

홍정민, KLPGA 놀부·화미 마스터즈 ‘제패’

다승·상금 ‘1위’…시즌 3승·누적 상금 12억9401만원

홍정민이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다승 공동 선두, 상금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홍정민은 12일 경기도 용인 88컨트리 클럽(파72·6748야드)에서 열린 K-푸드 놀부·화미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마지막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합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홍정민은 2위 서교림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홍정민은 지난 5월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8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이예원, 방신실과 함께 시즌 다승 공동 선두가 됐다.

아울러 우승 상금 2억1600만 원을 획득한 홍정민은 누적 상금 12억9401만6667원으로 노승희(12억8735만9754원)를 제치고 상금 랭킹 4위에서 단독 1위로 뛰어올랐다.

노승희는 2위로, 2위 유현조와 3위 방신실은 각각 3위와 4위로 내려앉았다.

홍정민은 대상 포인트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끌어올렸다. 1위 유현조와는 100포인트 차이다.

홍정민은 이날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냈다.

그는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면서 2위 그롭과 격차를 벌렸다.

4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1.83m 옆에 붙이며 첫 버디를 잡았고, 5

번 홀(파4)에서도 세컨드샷을 홀 0.8m 앞에 떨어뜨리며 연속 버디를 기록했다. 8번 홀(파5)에선 5.1m 거리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

위기도 있었다. 홍정민은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으며 손쉽게 우승하는 듯했으나 이후 잡 잡하다가 14번 홀(파4)에선 파 퍼트를 아쉽게 놓치면서 2위 서교림에게 두 타 차로 쫓겼다.

홍정민은 남은 홀에서 침착하게 파 세 이브 행진을 펼치면서 서교림과 두 타 차로 마지막 18번 홀(파5)에 들어갔다. 서교림은 버디 퍼트에 성공해 격차가 한 타로 줄었으나 홍정민

2라운드까지 단독 2위를 달렸던 이동은은 이날 1오버파 73타로 부진해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 9위로 미끄러졌다. 그는 8번 홀(파5)에서 티샷을 러프 깊숙한 곳에 떨어뜨렸고, 이후 공을 찾은 뒤 원래 위치에 놓지 않아 2벌타를 받았다.

이 홀에서 더블 보기를 기록한 이동은은 이후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며 선두권에서 멀어졌다.

상금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준 노승희와 다승 공동 1위 방신실은 4언더파 212타로 공동 18위를 기록했다. 다승 공동 선두 이예원은 5언더파 211타로 공동 1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은 침착하게 파 퍼트를 떨어뜨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박주영은 10언더파 206타로 단독 3위에 올랐고, 유현조는 9언더파 207타로 이다연, 송은아, 박혜준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